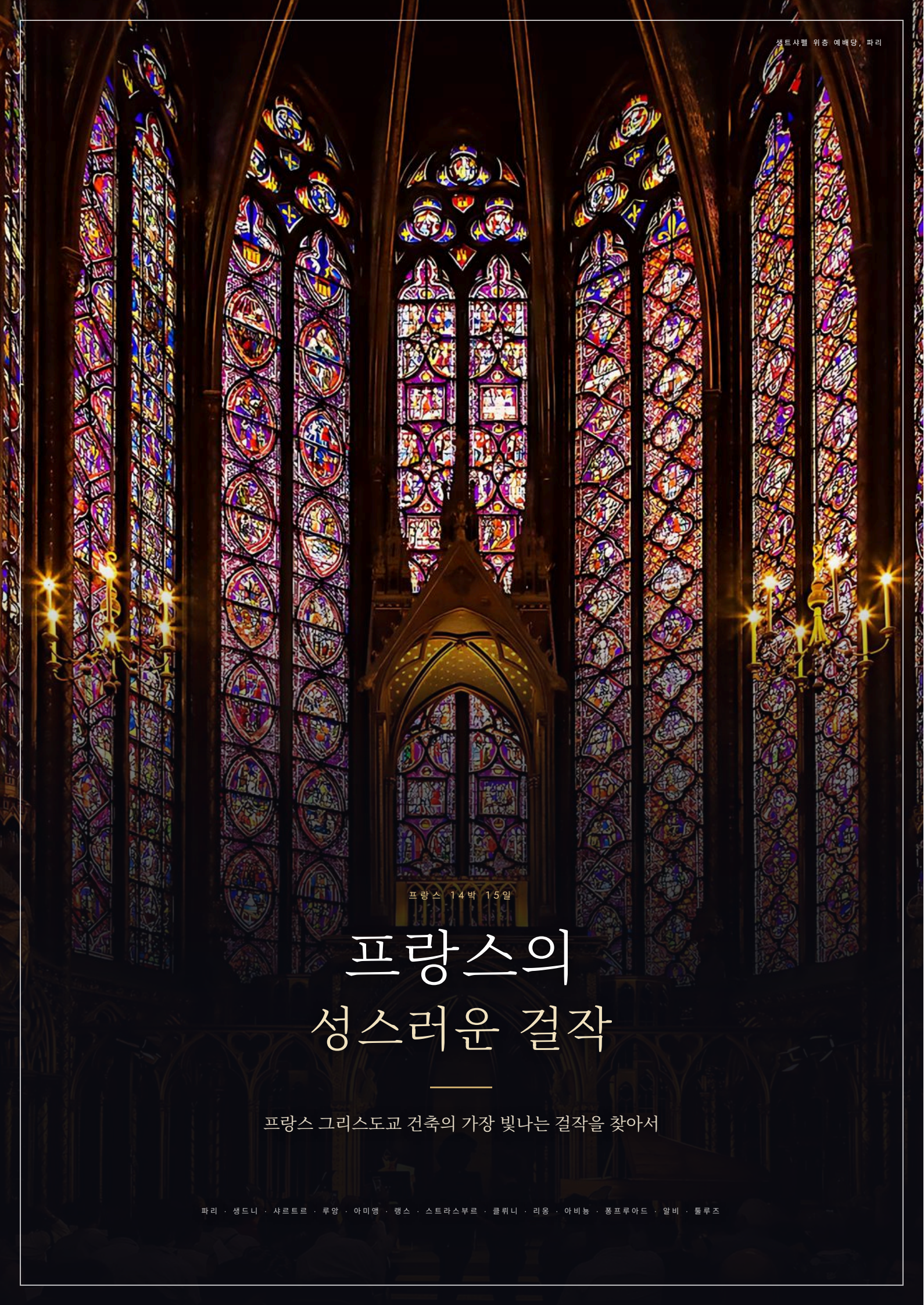


생트샤펠 위층 예배당, 파리

프랑스 14박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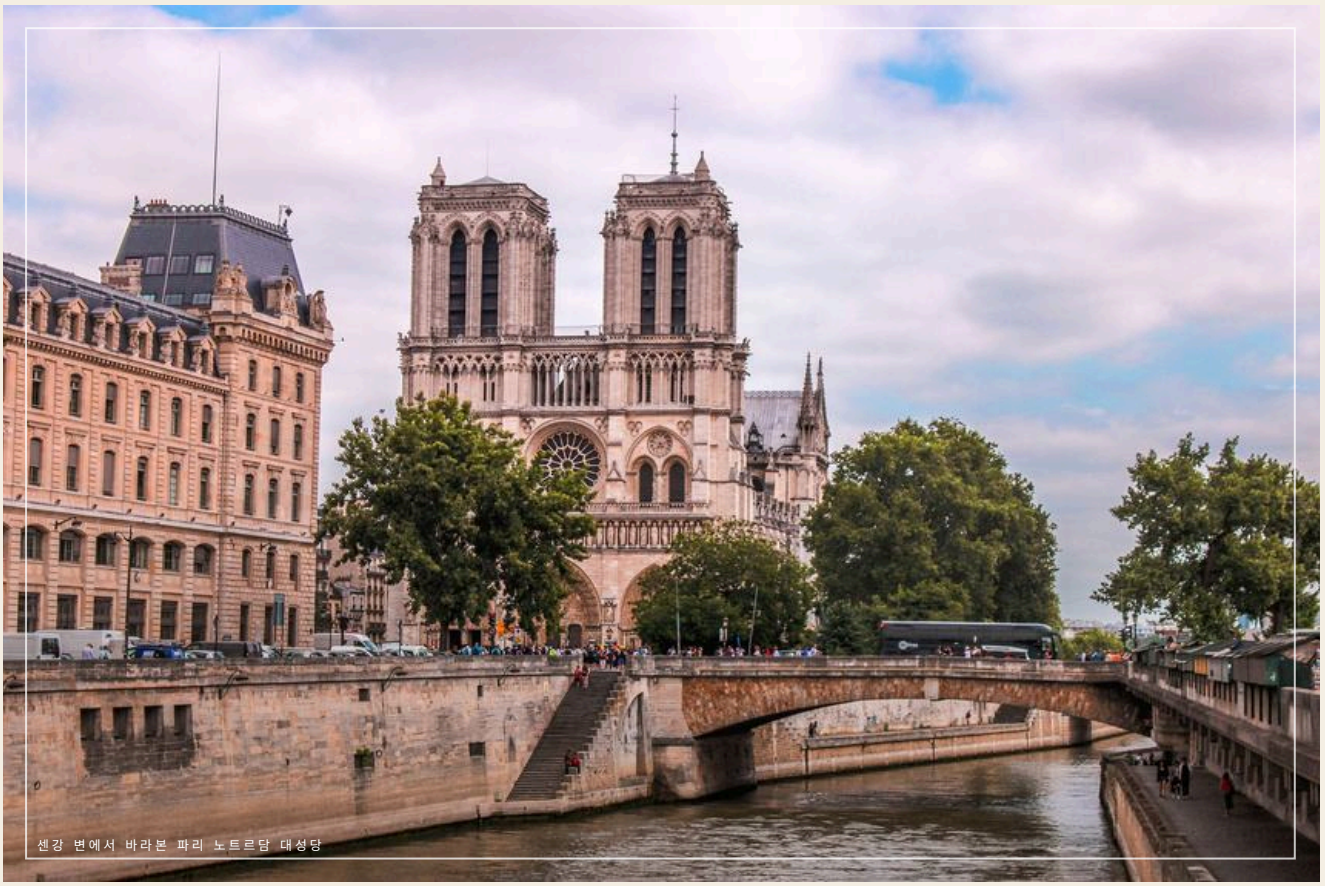
프랑스의 성스러운 걸작

프랑스 그리스도교 건축의 가장 빛나는 걸작을 찾아서

파리 · 생드니 · 샤르트르 · 루앙 · 아미앵 · 랭스 · 스트라스부르 · 클뤼니 · 리옹 · 아비뇽 · 퐁프루아드 · 알비 · 툴루즈

돌과 빛,
그리고 건축가들의 천재성

클뤼니 수도원에서 알비의 채색 궁륭까지, 그리스도교 건축 천 년.



센강 변에서 바라본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여러 세기에 걸쳐 수많은 세대의 **건축가**와 석공, 조각가, **유리화가**, 화가들이 거룩함의 위대함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여행은 대성당을 줄지어 둘러보는 일정이 아닙니다. 누가 이 건축물을 원했고, 누가 설계하고 세웠으며, 어떤 난관을 넘어야 했는지 따라가는 **건축사 속으로의 깊은 여정**입니다.

모든 여정지는 저마다의 **탁월한 독창성** 때문에 선택되었고, 저마다 다른 발견을 안겨 줍니다. **생트샤펠**의 유리, **아미앵**의 웅장함, **랭스**의 장엄함, **알비**의 벽돌, 그리고 **툴루즈**의 대담함.

여정을 잇는 하나의 이야기

네 개의 장,
천 년의 걸작

일드프랑스의 초기 고딕에서 남프랑스의 대담한 벽돌 건축까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남쪽 장미창과 첨탑

제 I 장

파리, 고딕의 기원

파리 · 생드니 · 1 – 3일차

노트르담 대성당, 생트샤펠, 그리고 고딕 예술이 태어난 대성당.



샤르트르 대성당의 서쪽 정면

제 II 장

북부의 위대한 대성당

샤르트르 · 루앙 · 아미앵 · 랭스 · 3 – 7일차

샤르트르의 스테인드글라스, 모네의 정면, 프랑스에서 가장 큰 신랑, 대관식의 대성당.



언덕 위의 푸르비에르 대성당, 리옹

제 III 장

알자스에서 론 계곡으로

스트라스부르 · 콜마르 · 리옹 · 7 – 10일차

아찔하게 솟은 첨탑, 서방에서 가장 강력했던 수도원, 푸르비에르의 모자이크.



생트세실 대성당과 베르비 궁, 알비

제 IV 장

남프랑스의 찬란함

아비뇽 · 퐁프루아드 · 알비 · 툴루즈 · 10 – 15일차

교황청, 시토회 수도원의 회랑, 알비의 벽돌, 그리고 생세르냉의 로마네스크.



랭스 대성당의 측랑

고딕 기둥이 빚어내는 리듬

열 개의 연도로 보는 천 년

클뤼니에서 노트르담까지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걸작들의 결정적인 순간들.

910 — **클뤼니**

아키텐의 기욤이 수도원을 세웁니다. 이 수도원은 곧 서방 수도 생활의 흐름을 이끌게 됩니다.

1144 — **생드니**

쉬제르 수도원장이 빛으로 가득한 내진을 봉헌합니다. 고딕 예술이 탄생합니다.

1163 — **파리 노트르담**

모리스 드 쉴리 주교가 대성당 공사를 시작합니다.

1194 — **샤르트르**

화재로 무너진 대성당이 약 서른 해 만에 다시 세워집니다.

1220 — **아미앵**

로베르 드 뤼자르슈가 프랑스에서 가장 큰 고딕 대성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1248 — **생트샤펠**

성왕 루이가 유리와 빛으로 지은 거대한 성유물함을 봉헌합니다.

1282 — **알비**

베르나르 드 카스타네가 벽돌 대성당의 첫 돌을 놓습니다.

1335 — **아비뇽**

베네딕토 12세가 론강 가에 교황청 건설을 시작합니다.

1439 — **스트라스부르**

첨탑이 완성됩니다. 142미터 높이로 그리스도교 세계를 굽어봅니다.

2024 — **파리 노트르담**

화재 5년 만에 대성당이 다시 문을 엽니다.

열네 개의 건축물,
열네 번의 발견

고딕 대성당, 로마네스크 성당,
수도원, 왕실 예배당, 그리고
교황의 궁전.



1

노트르담

2일차



2

생트샤펠

2일차



3

생드니

3일차



4

샤르트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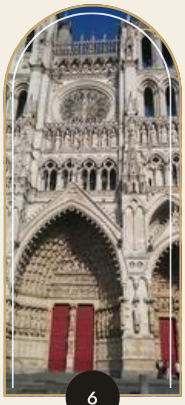
4일차



5

루앙

5일차



6

아미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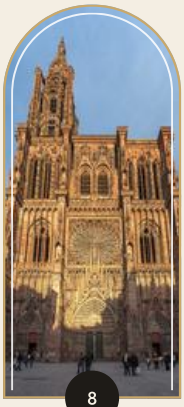
6일차



7

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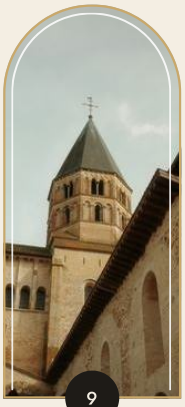
7일차



8

스트라스부르

8일차



9

클뤼니

9일차



10

푸르비에르

10일차



11

아비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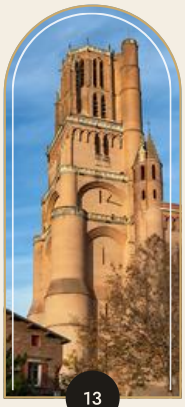
11일차



12

퐁프루아드

12일차



13

알비

13일차



14

툴루즈

14일차

모든 건축물은 저마다의 탁월한 독창성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15	14	8	4
일, 14박	걸작	전문 가이드 투어	장인 공예 체험



여행 경로

걸작을 잇는 위대한 여정

*14*박 *15*일, 전 일정 전용 대형 관광버스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툴루즈 블라냑크 공항까지.

1 파리 · 생드니
1 – 3일차 · 2박

2 샤르트르
3 – 4일차 · 1박

3 루앙
4 – 5일차 · 1박

4 아미앵
5 – 6일차 · 1박

5 랭스
6 – 7일차 · 1박

6 스트라스부르
7 – 8일차 · 1박

7 클뤼니
8 – 9일차 · 1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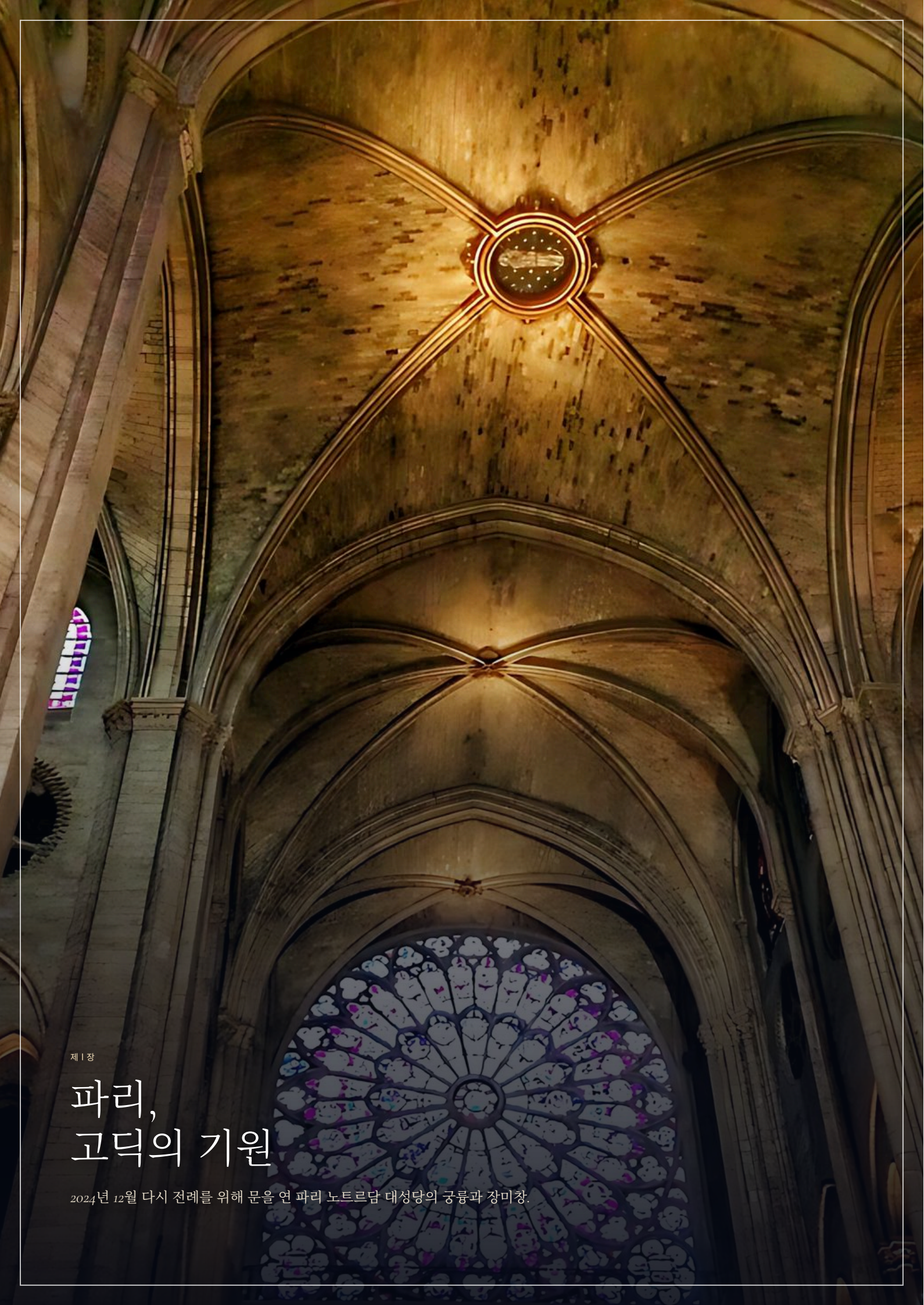
8 리옹
9 – 10일차 · 1박

9 아비뇽
10 – 11일차 · 1박

10 나르본 · 퐁프루아드
11 – 12일차 · 1박

11 알비
12 – 13일차 · 1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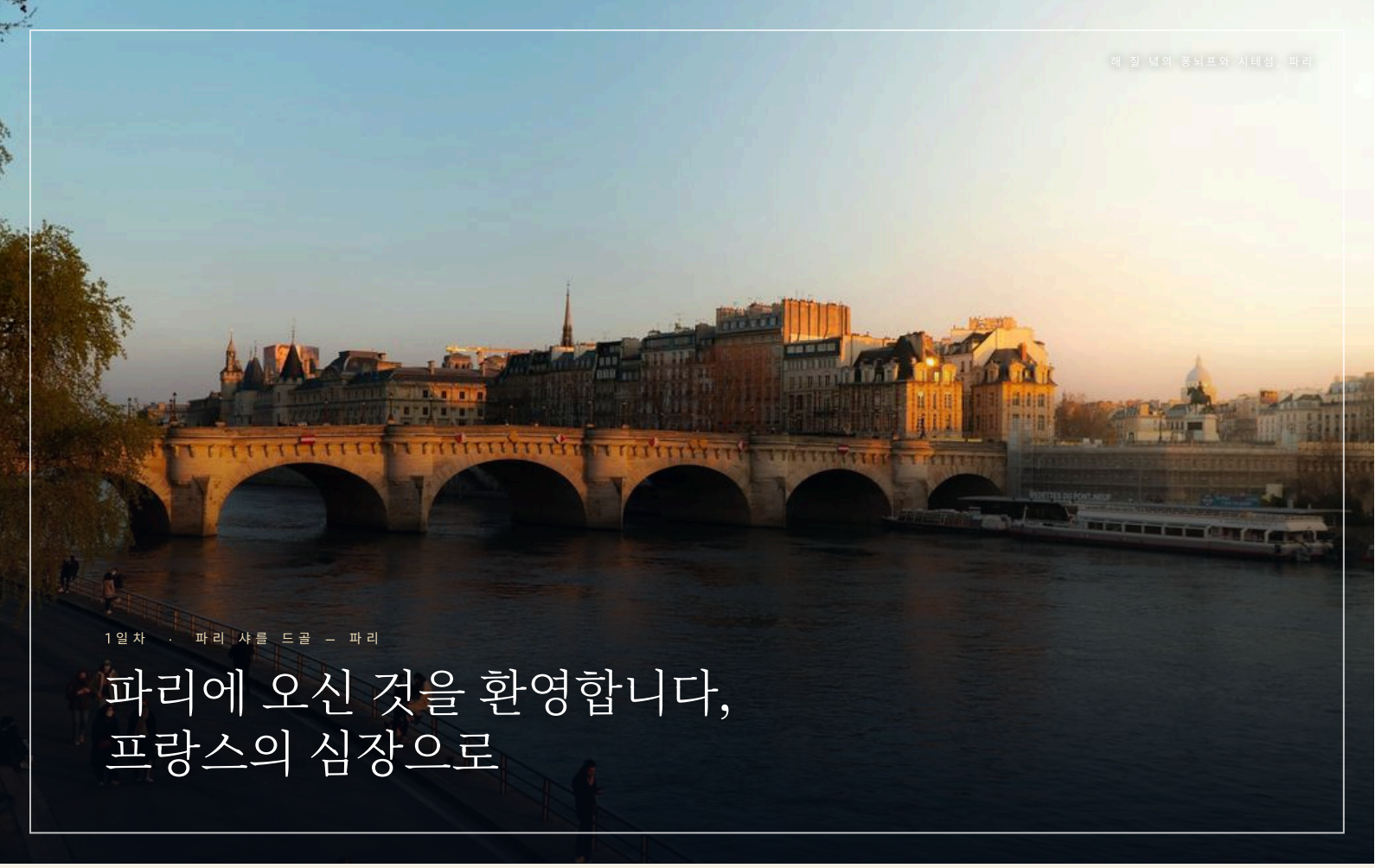
12 툴루즈
13 – 15일차 · 2박



제 I 장

파리, 고딕의 기원

*2024*년 *12*월 다시 전례를 위해 문을 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궁륭과 장미창.



해 질 녘의 퐁뇌프와 시테섬, 파리

1일차 · 파리 샤를 드골 — 파리

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랑스의 심장으로

오전	오후	저녁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도착	호텔까지 전용 차량 이동	환영 만찬
일행 영접	체크인 및 휴식	파리 숙박

천 년의 건축을 가로지르는 위대한 여행의 첫날 저녁.

일행은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 영접을 받은 뒤 **전용 차량**으로 호텔에 도착합니다. 체크인 후 휴식을 취합니다.

저녁에는 **환영 만찬**과 함께 **프랑스 건축의 경이**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막이 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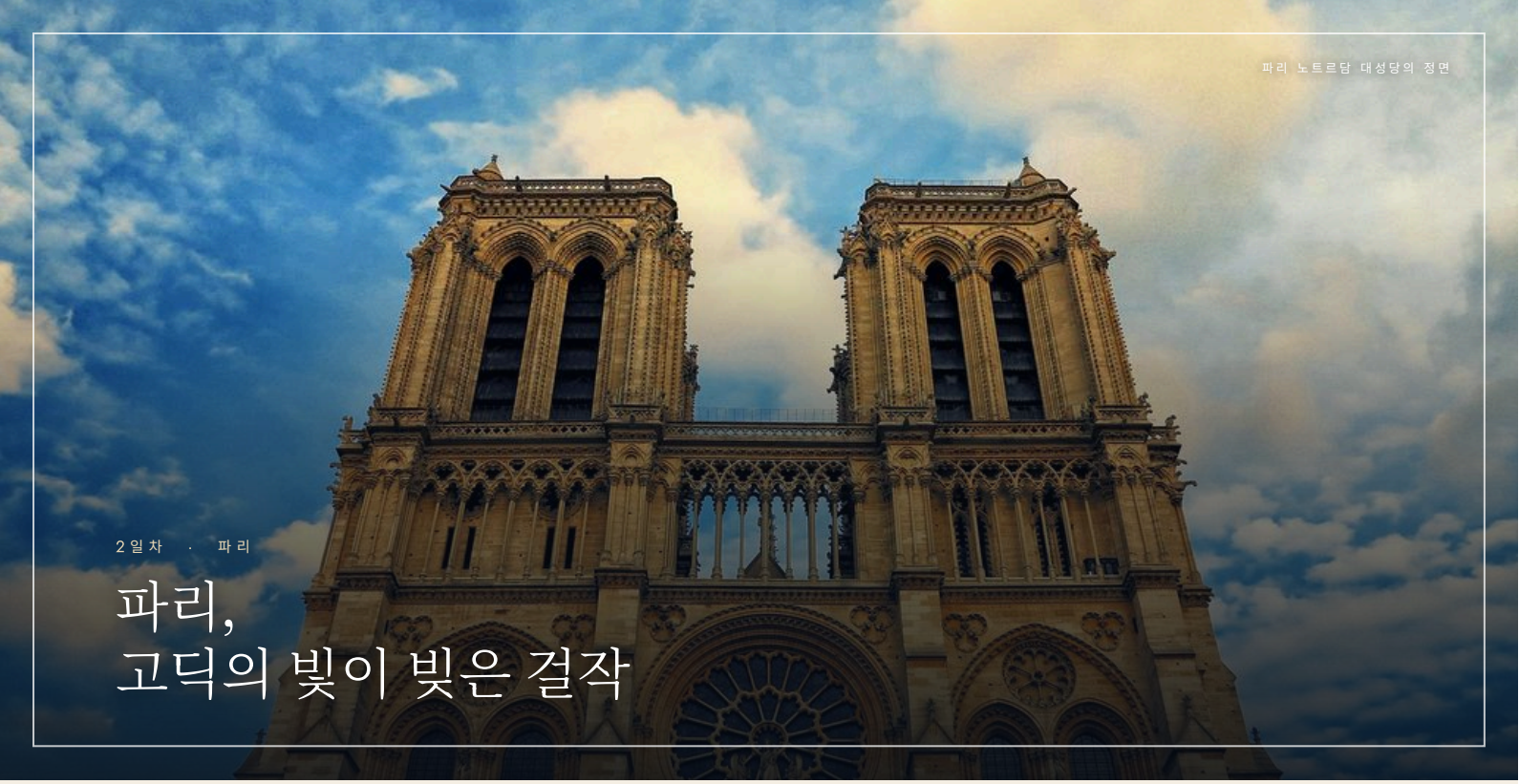
알고 계셨나요?

원점

노트르담 대성당 앞 광장에는 프랑스 도로의 기준점을 표시한 청동 별이 박혀 있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거리는 이 대성당에서부터 잽니다.



황혼의 알렉상드르 3세 다리, 파리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면

2 일 차 · 파 리

파리,
고딕의 빛이 빚은 걸작

오전	오후	저녁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생트샤펠	점심 식사 파리의 또 다른 발견	센강 미식 디너 크루즈 파리 숙박

상징적인 두 건축물, 그리고 강 위에서 바라보는 빛의 파리.

하루는 1163년에 공사를 시작한 고딕의 걸작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시작해, **성왕 루이**가 그리스도 수난의 성유물을 모시려고 지은 **생트샤펠**으로 이어집니다.

저녁에는 **미식 디너 크루즈**가 센강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불 밝힌 파리의 기념물들이 강변을 따라 펼쳐집니다. 파리에서 둘째 밤을 보냅니다.

알고 계셨나요?

135,000

*1239*년 성왕 루이가 가시관을 얻기 위해 치른 투르 리브르화의 액수입니다. 생트샤펠 건축비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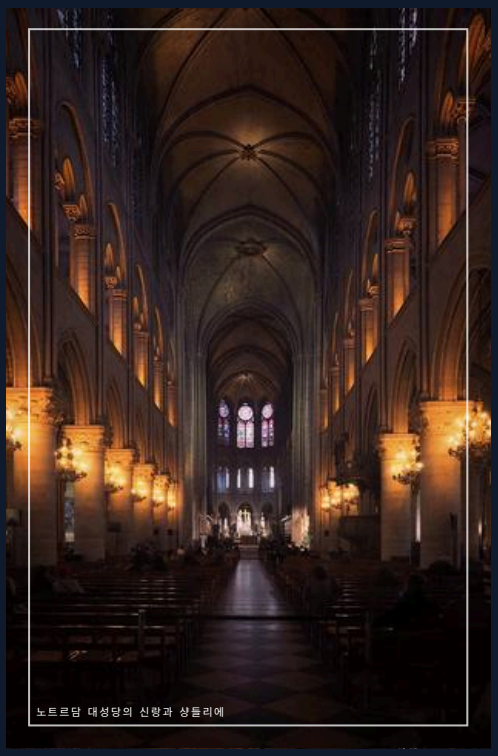


생트샤펠 상층 예배당



에펠탑 앞을 지나는 센강 저녁 유람선

여덟 세기의 돌, 다섯 해의 부활



노트르담 대성당의 신랑과 샹틀리에

건축가들

1163년 **모리스 드 쉴리** 주교는 왕국의 수도 파리에 걸맞은 대성당을 짓기로 합니다. 신랑은 **교차 리브 궁륭** 아래 33미터 높이로 솟았고, 건축가들은 궁륭의 하중을 바깥으로 흘려보내 벽을 열어 주는 긴 **공중 버팀벽**을 고안했습니다.

작품들

지름이 13미터에 가까운 북쪽 장미창을 비롯한 13세기의 세 **장미창**은 당대 가장 큰 규모에 속합니다. 19세기에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힘입어 건축가 **비올레르뒤크**가 건물을 복원하고 첨탑을 세웠습니다.



위층 회랑의 키메라 조각, 노트르담

화재와 부활

2019년 4월 15일, '숲'이라 불리던 중세의 목조 지붕에 불이 붙고 첨탑이 무너졌습니다. 장인들은 중세의 기법으로 원형 그대로 다시 지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과 8일**, 대성당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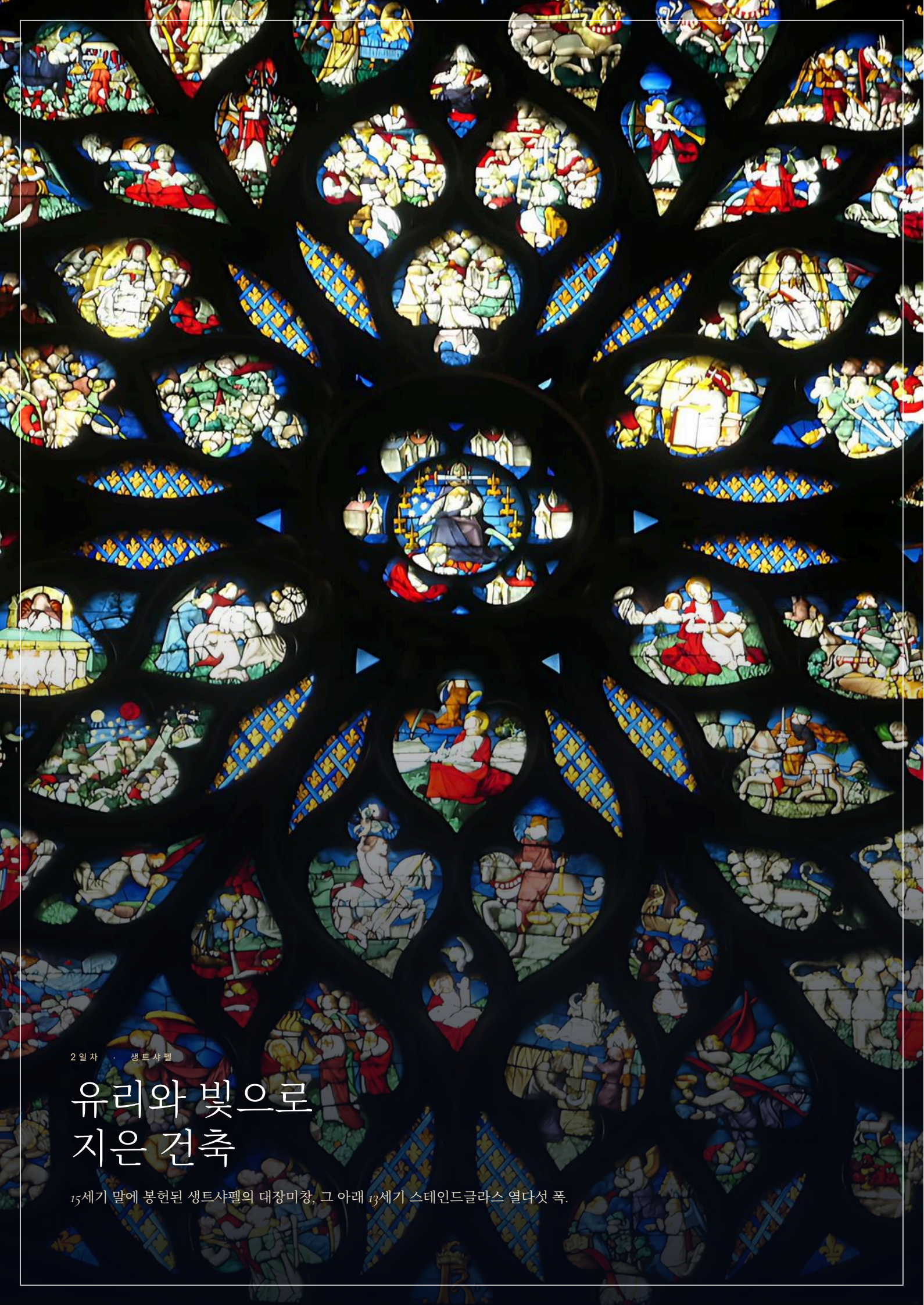
"이 유서 깊은 건물의 모든 면, 모든 돌은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학문과 예술의 역사를 기록한 한 페이지다."

빅토르 위고, 『노트르담 드 파리』, 1831년

주요 연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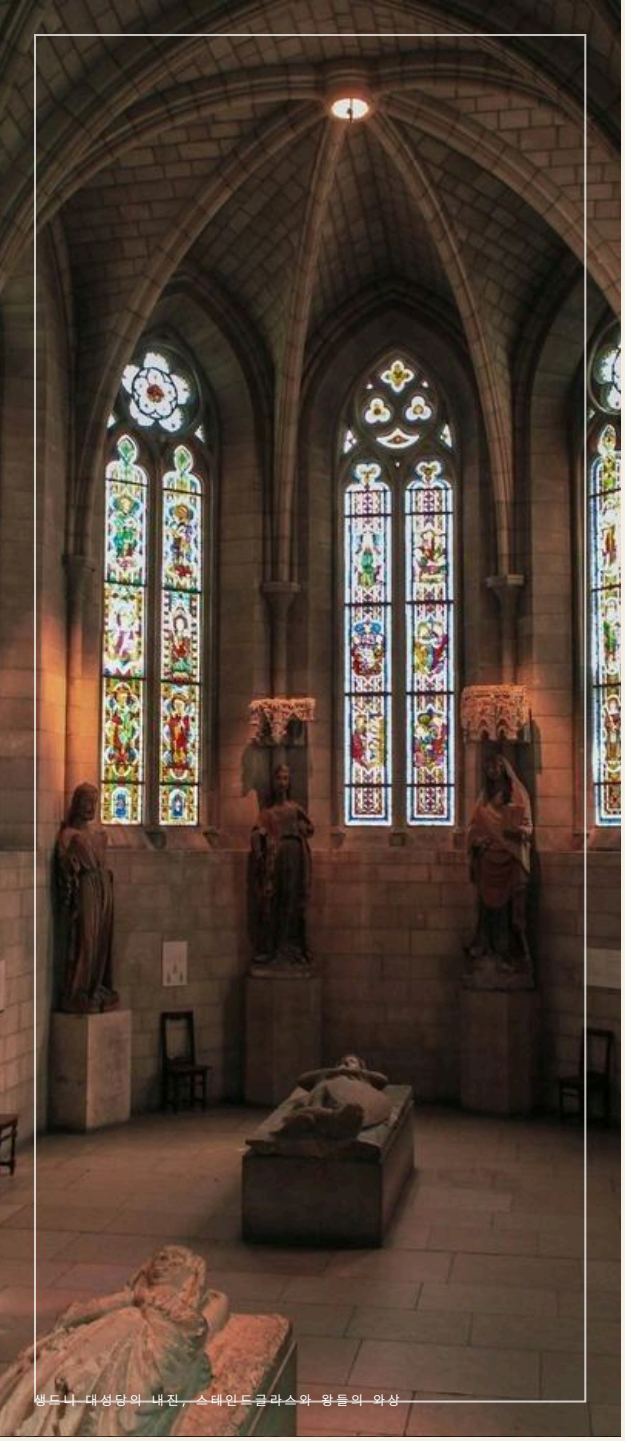
2,000명이 넘는 장인과 명장들이 복원에 참여했습니다. 유럽 문화유산 역사상 가장 큰 공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2 일 차 · 생 트 샤 펠

유리와 빛으로 지은 건축

15세기 말에 봉헌된 생트샤펠의 대장미창, 그 아래 13세기 스테인드글라스 열다섯 폭.



생드니 대성당의 내진, 스테인드글라스와 왕들의 와상



생드니 왕실 묘역의 왕 와상

3일차 · 파리 – 생드니 – 샤르트르

생드니, 고딕의 요람

오전	생드니 대성당 가이드 투어
오후	점심 식사 샤르트르로 이동
저녁	체크인, 저녁 식사 샤르트르 숙박

건축이 빛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곳.

오전은 **가이드 투어**와 함께 **생드니 대성당**에서 보냅니다. 12세기 **쉬제르** 수도원장은 이곳에서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켰습니다. 더 가벼운 궁륭, 열린 벽, 거대한 **스테인드글라스**.

이곳은 **프랑스 왕들의 묘소**이기도 합니다. 다고베르에서 루이 18세까지 대부분의 군주가 잠든 무덤과 **와상**이 모여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샤르트르**로 이동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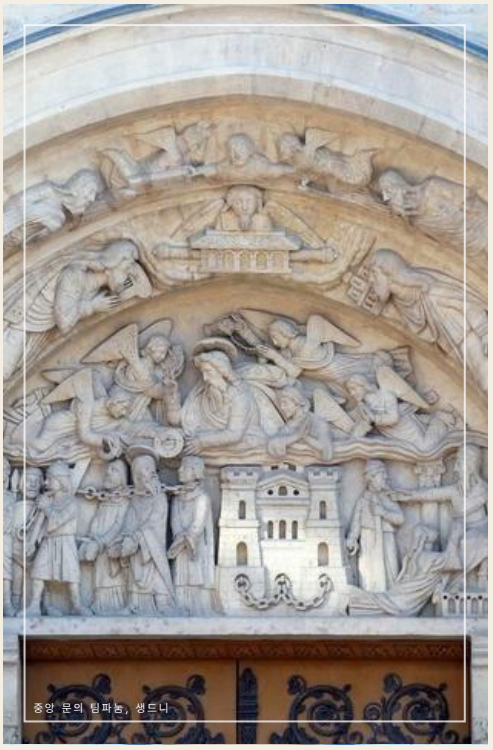
43

명의 왕과 *32*명의 왕비가 생드니에 잠들어 있습니다. 프랑스 왕정 열다섯 세기의 역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쉬제르 수도원장과 빛의 발명

구상한 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쉬제르**는 1122년 생드니 수도원장이 되어 루이 6세와 루이 7세를 보좌했습니다. 그는 물질의 아름다움이 영혼을 하느님께 이끈다고 믿었고, **빛**이 곧 기도가 되는 성당을 원했습니다.



중앙 문의 팀파눔, 생드니

혁신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그의 건축가들은 **첨두아치**와 **교차 리브 궁륭**, 버팀벽을 결합했습니다. 벽이 더 이상 모든 무게를 지지 않아도 되었기에 **스테인드글라스**를 향해 열릴 수 있었습니다. **1144년 6월 11일** 왕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된 내진은 '끊임없는 빛'에 잠겼고, 이 모델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루이 12세와 안 드 브르타뉴의 장엄한 무덤

왕실 묘역

1793년 약탈당한 무덤들은 **알렉상드르 르누아르**가 지켜 냈고, 19세기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날 이 **와상**들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례 조각군을 이룹니다.

> "둔한 정신은 물질을 통해 진리로 들어 올려진다."
>
> 쉬제르가 수도원 청동 문에 새기게 한 명문

주요 연도

1966

옛 수도원 성당은 새로 설립된 생드니 교구의 주교좌 대성당이 되었으며, 바실리카의 칭호와 왕실 묘역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I I 장

북부의 위대한 대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궁륭 아래 스미는 금빛 햇살.

샤르트르,
천 가지 빛깔의 대성당

오전	오후	저녁
샤르트르 노트르담 대성당 유네스코 세계유산	점심 식사 국제 스테인드글라스 센터	루앙으로 이동, 저녁 식사 루앙 숙박

세계 최대의 중세 스테인드글라스, 그리고 그 제작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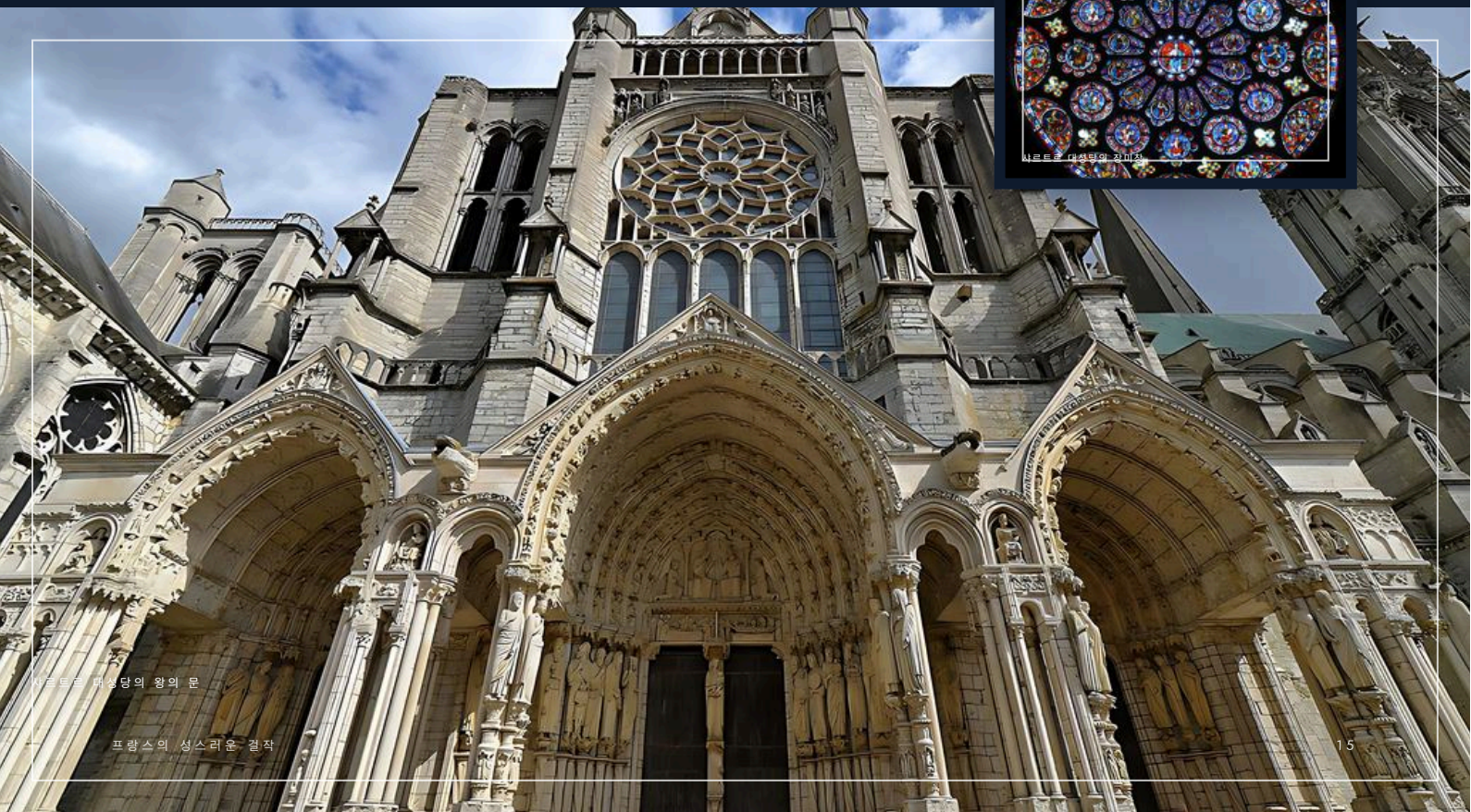
오전은 **샤르트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보냅니다. 12세기의 **왕의 문**, 서로 다른 두 탑, 미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유명한 **샤르트르 블루**가 빛나는 놀라운 색채의 **스테인드글라스**.

오후에는 **국제 스테인드글라스 센터**에서 스테인드글라스의 역사와 유리 작업, 그리고 **유리화 장인**들의 기술이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만납니다. 저녁에 **루앙**으로 이동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2,600

제곱미터에 이르는 스테인드글라스, 대부분 원형 그대로입니다. 샤르트르는 *12–13*세기 스테인드글라스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샤르트르 대성당의 장미창

샤르트르 대성당의 왕의 문

한 세대 만에 세워져, 여덟 세기 동안 온전히



샤르트르의 스테인드글라스



신랑과 미로, 샤르트르

시련

1194년 6월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는 밤, 화재가 도시와 로마네스크 대성당을 집어삼킵니다. 남은 것은 지하 성당과 서쪽 정면, 그리고 대머리왕 샤를이 기증한 성유물인 **성모님의 베일**뿐이었습니다.

공사

왕과 귀족, 상인과 순례자들이 재건 비용을 댔습니다. 불과 서른 해 남짓 만에 새 대성당이 놀라운 **양식적 통일성**을 갖추고 완성되었습니다. 건축가들은 **트리포리움**을 둔 3층 입면을 택했고, 이는 고전 고딕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빛

176개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성경과 성인들의 삶, 그리고 이를 봉헌한 제빵사, 통장이, 환전상 같은 동업 조합의 삶을 들려줍니다. 산화코발트로 얻은 푸른빛이 그 명성을 만들었습니다.

"샤르트르 대성당은 프랑스의 아크로폴리스다."

오귀스트 로댕, 『프랑스의 대성당』, 1914년

주요 연도

1979

샤르트르는 건축과 놀랍도록 잘 보존된 스테인드글라스를 인정받아 프랑스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 하나로 등재되었습니다.



5일차 · 루앙 — 아미앵

루앙,
모네가 영원히 남긴 대성당

오전	오후	저녁
루앙 노트르담 대성당 가이드 투어	점심 식사 불의 예술 갤러리, 에트르 생마클루	아미앵으로 이동, 저녁 식사 아미앵 숙박

레이스 같은 정면, 그에 매혹된 화가, 그리고 물질을 변화시키는 장인의 손.

오전은 **가이드 투어**와 함께 **루앙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보냅니다. 고딕의 모든 시대가 담긴 건물이자, **클로드 모네**가 서른 번 넘게 그린 정면입니다.

점심 식사 후, 유서 깊은 **에트르 생마클루**에 자리한 **불의 예술 갤러리**에서 **도자기**, **유리**, **금속** 공예를 만납니다. 저녁에 **아미앵**으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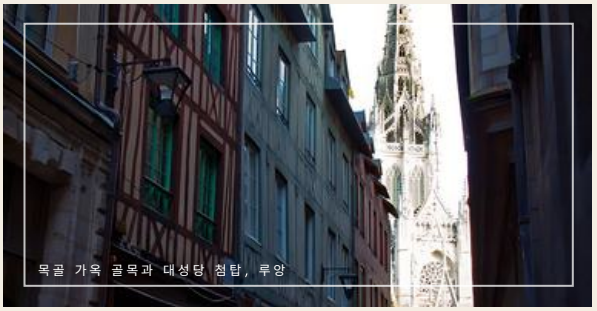
알고 계셨나요?

151m

*1876*년에 완성된 루앙 대성당의 주철 첨탑은 프랑스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에트르 곁의 생마클루 성당, 루앙



목골 가옥 골목과 대성당 첨탑, 루앙

대성당 앞의 클로드 모네

대성당

여러 세기에 걸쳐 지어진 루앙 노트르담 대성당에는 고딕의 모든 시대가 담겨 있습니다. 12세기의 **생로맹 탑**, 13세기의 신랑,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사순절에 버터를 먹고자 한 신자들의 관면 헌금으로 지어진 후기 고딕의 **버터 탑**.



모네가 그린 서쪽 정면, 루앙

화가

1892년 2월, **클로드 모네**는 대성당 정면이 마주 보이는 방을 빌립니다. 두 번의 겨울 동안 그는 같은 돌을 시간마다 그렸습니다. 아침의 푸른 안개, 한낮의 금빛, 저녁의 분홍빛.



루앙 대성당의 신랑과 대장미창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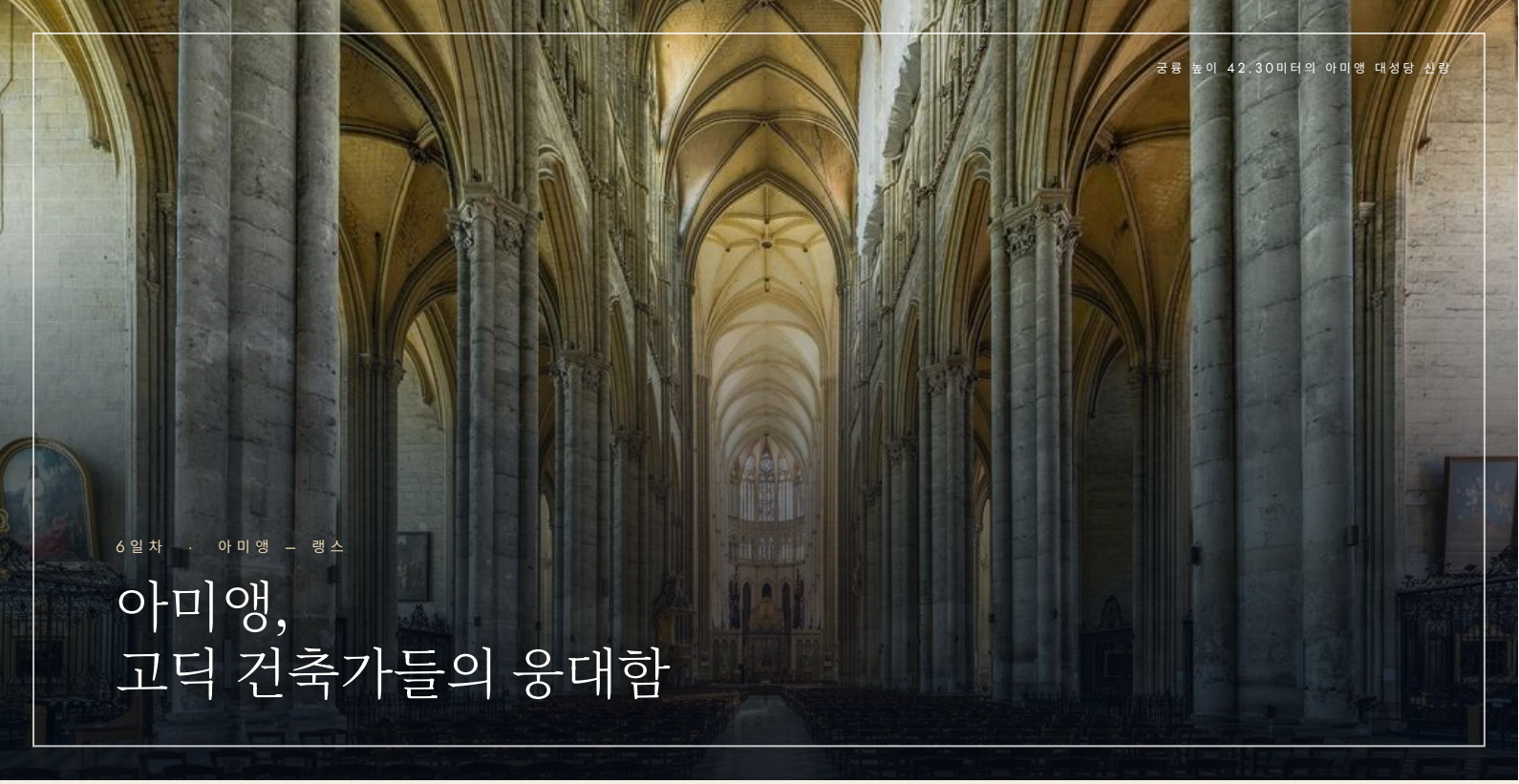
그가 그린 것은 더 이상 대성당이 아니라 대성당을 감싸는 **빛**이었습니다. 1895년에 전시된 이 연작은 현대 회화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모네는 건축가들이 꿈꾼 것을 드러냈습니다. 빛과 함께 **떨리는** 돌을.

> “악몽 같은 밤을 보냈소. 대성당이 내 위로 무너져 내렸고, 푸르게, 분홍빛으로, 노랗게 보였다오.”
>
> 클로드 모네, 알리스 오셰데에게 보낸 편지, 1893년 4월

주요 연도

30+

모네는 대성당을 서른 점 넘게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오늘날 오르세 미술관에, 한 점은 루앙 미술관에 있습니다.



궁륭 높이 42.30미터의 아미앵 대성당 신랑

6일차 · 아미앵 – 랭스

아미앵,
고딕 건축가들의 웅대함

오전	오후	저녁
아미앵 노트르담 대성당 가이드 투어	점심 식사 랭스로 이동	체크인, 저녁 식사 랭스 숙박

알고 계셨나요?

1288

신랑 바닥의 미로 한가운데에는 세 건축가, 로베르 드 뤼자르슈, 이어 토마와 르노 드 코르몽의 이름을 새긴 명문이 있습니다.

불과 일흔 해 만에 세워진 프랑스 최대의 고딕 대성당.

오전은 **가이드 투어**와 함께 **아미앵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보냅니다. 1220년 건축가 **로베르 드 뤼자르슈**가 시작한 이 대성당은 약 20만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내부 공간**을 품고 있습니다.

신랑의 높이는 **42.30미터**에 이릅니다. 이토록 높은 궁륭과 거의 유리로만 이루어진 벽을 지탱하기 위해 건축가들은 **공중 버팀벽**을 겹겹이 세웠습니다. 점심 식사 후 **랭스**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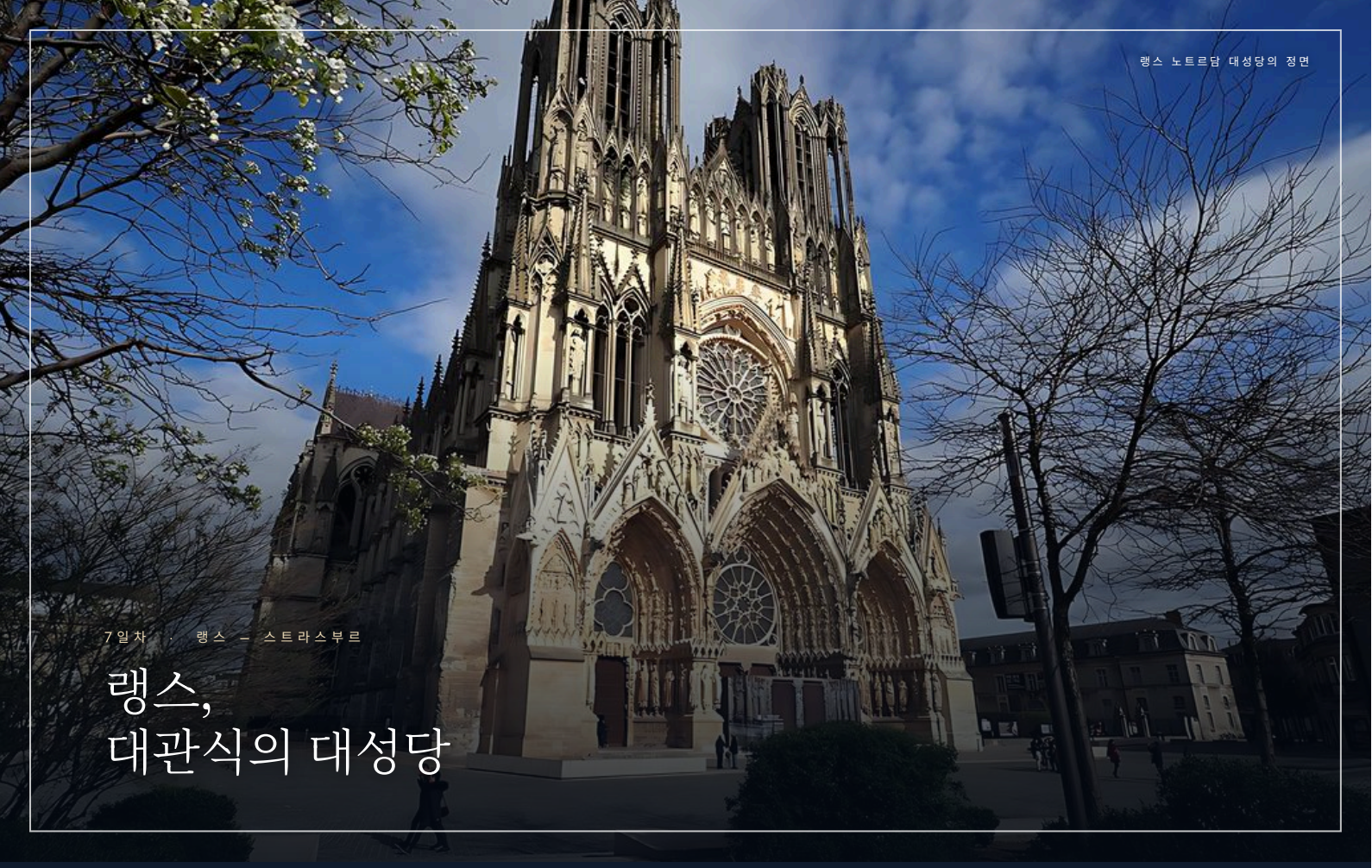
아미앵 대성당, 후진의 공중 버팀벽과 작은 첨탑



6일차 · 아미앵

돌과 참나무로 쓴 성경

16세기 초에 조각된 110개의 참나무 성직자석이 있는 아미앵 대성당의 내진.



랭스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면

7일차 · 랭스 — 스트라스부르

랭스,
대관식의 대성당

오전	오후	저녁
랭스 노트르담 대성당 가이드 투어	점심 식사 스트라스부르로 이동	체크인, 저녁 식사 스트라스부르 숙박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각상으로 장식된 정면, 왕들의 대관식이 열린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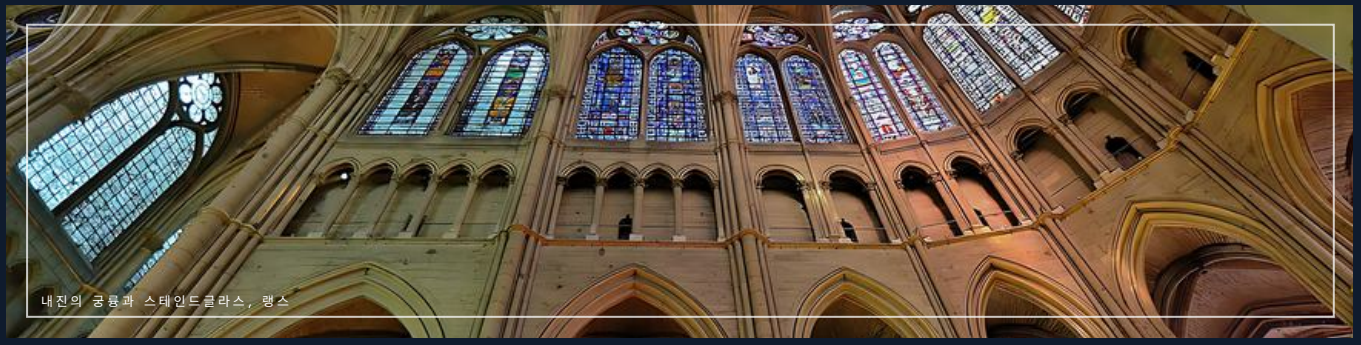
오전은 **가이드 투어**와 함께 **랭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보냅니다. 그 유명한 **미소 짓는 천사**를 비롯해 **2,300개가 넘는 조각상**이 문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는 13세기 작품부터 **마르크 샤갈**의 창까지 이어집니다.

여러 세기 동안 프랑스의 거의 모든 왕이 1825년 샤를 10세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대관** 도유를 받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스트라스부르**로 곧장 이동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1914

*9*월 *19*일, 포격으로 대성당에 불이 붙었고 미소 짓는 천사는 머리를 잃었습니다. 복원된 천사는 *1926*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진의 궁륭과 스테인드글라스, 랭스

프랑스의 왕들이 대관한 대성당



미소 짓는 천사, 랭스 북쪽 문, 랭스



랭스 대성당의 서쪽 장미창

기원

500년 무렵 **레미지오** 주교가 이곳에서 프랑크족의 왕 **클로비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일로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왕들은 랭스에서 도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1210년의 화재 뒤 **오브리 드 앵베르** 대주교가 지금의 대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들

장 도르베에서 **베르나르 드 수아송**까지 네 명의 건축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을 가르는 섬세한 돌 장식인 **트레이서리**를 고안했고, 정면을 거대한 조각 제단화로 만들었습니다.

샤를 7세의 대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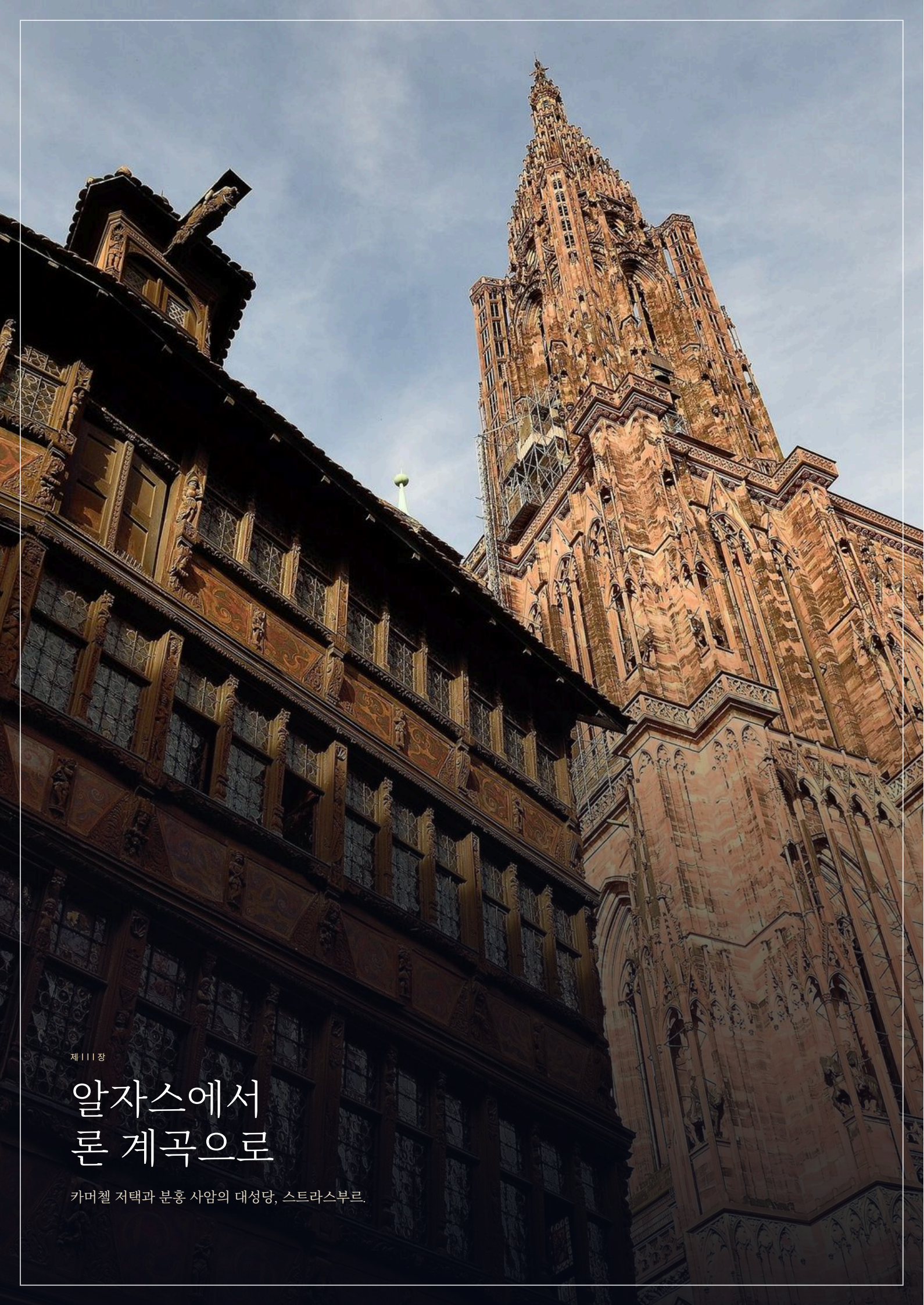
백년 전쟁이 한창이던 **1429년 7월 17일**, **잔 다르크**가 왕세자를 랭스로 이끕니다. 그녀는 깃발을 손에 들고 제대 곁에 서서, 왕에게 정통성을 되찾아 준 대관식을 지켜보았습니다.

> “고귀하신 왕이시여, 이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전하께서 랭스로 오시어 합당한 대관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
> 잔 다르크가 샤를 7세에게, 당대 연대기에 따라

주요 연도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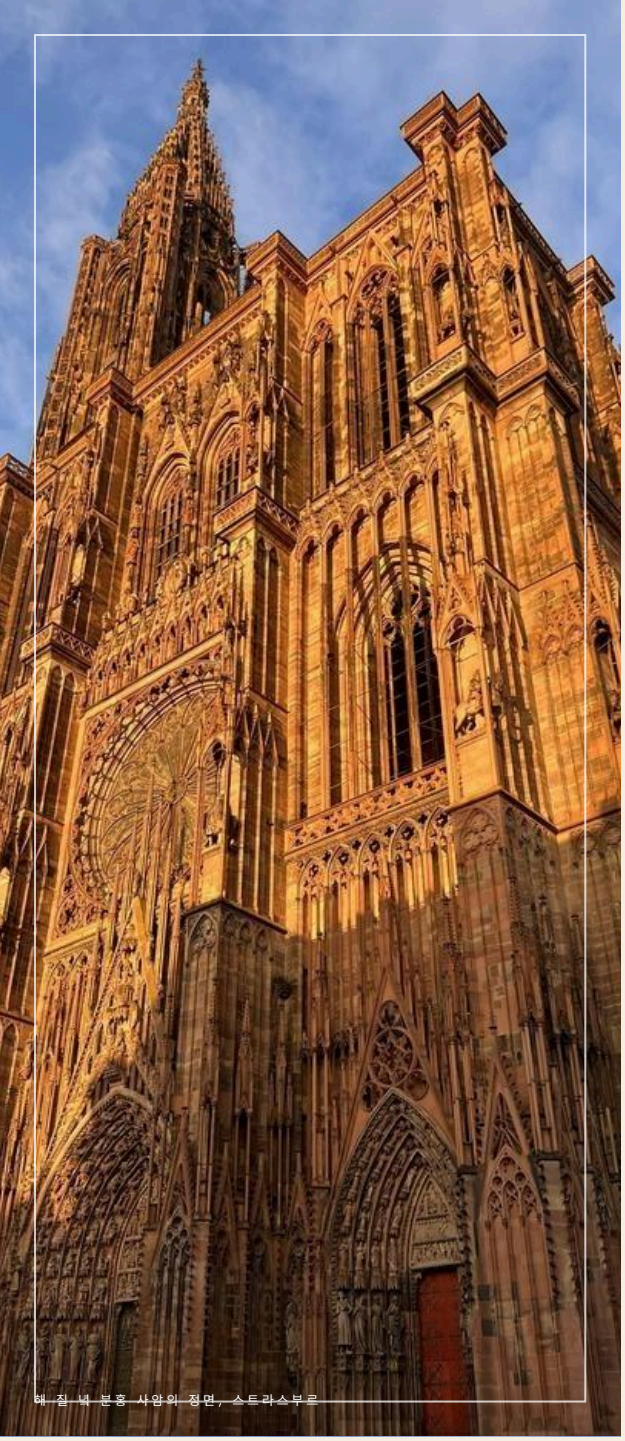
랭스 대성당, 옛 생레미 수도원, 토 궁전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제 I I I 장

알자스에서 론 계곡으로

카머첼 저택과 분홍 사암의 대성당, 스트라스부르.



해 질 녘 분홍 사암의 정면,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의 신랑

8일차 · 스트라스부르 – 클뤼니

스트라스부르, 알자스 건축의 대담함

오전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가이드 투어
오후	스트라스부르에서 점심 식사 부르고뉴로 이동
저녁	도중 휴식, 저녁 식사 클뤼니 또는 인근 숙박

분홍 사암의 정면, 아찔한 첨탑, 그리고 천재적인 시계.

오전은 **가이드 투어**와 함께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에서 보냅니다. 레이스처럼 섬세하게 깎은 보주산 **분홍 사암**의 정면과 조각들, 그리고 142미터 높이의 독보적인 **첨탑**.

내부에서는 그 유명한 **천문시계**가 기계 공학과 천문학, 예술을 하나로 엮어 냅니다. 점심 식사 후 도중에 휴식을 취하며 **부르고뉴**로 이동합니다. 클뤼니 또는 인근에서 저녁 식사 후 숙박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227년

*1647*년부터 *1874*년까지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하늘에 닿기 위한 첨탑과 시계

정면

1277년 **에르빈 폰 슈타인바흐**가 서쪽 정면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면을 하프처럼 구상했습니다. 가느다란 돌기둥들이 벽에서 떨어져 나와 수직선의 그물을 이루고, 장미창 앞에 떠 있는 듯 보입니다.

첨탑

1439년, 퀼른 출신의 **요하네스 휠츠**가 위에서 아래까지 투각된 팔각형 첨탑과 바깥으로 드러난 나선 계단을 완성합니다. 142미터 높이에 선, 거의 투명한 돌의 피라미드입니다.

시계

최초의 시계는 14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시계는 1838년부터 1842년까지 **장바티스트 슈빌게**가 만든 작품으로, 태양시와 달의 위상, 행성의 위치, 그리고 **부활절 날짜**까지 계산합니다. 매일 12시 30분이면 **사도들**이 그리스도 앞을 지나갑니다.



대성당의 천문시계


퐁 쿠베르와 라 프티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 “하느님의 나무처럼 높고 넓게 가지를 펼치며 솟아오른다.”
>
> 괴테, 「독일 건축에 관하여」, 1772년

주요 연도

1842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슈빌게의 교회력 계산 장치는 같은 종류 가운데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로 꼽힙니다.

클뤼니,
그리스도교 세계의 가장 강력한 수도원

오전	오후	저녁
클뤼니 수도원 수도원 구역과 수도원 건물	점심 식사 리옹으로 이동	체크인, 저녁 식사 리옹 숙박

유럽 전역으로 뻗어 나간 수도원 네트워크의 심장.

910년 아키텐의 기욤이 세운 **클뤼니 수도원**은 오직 교황에게만 속했습니다. 이 수도원은 스페인에서 폴란드까지 천 곳이 넘는 수도원을 거느린 네트워크의 중심이 됩니다.

길이 187미터의 수도원 성당 **클뤼니 제3 성당**은 거의 다섯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습니다. 혁명 이후 허물어졌지만 **디지털 복원** 덕분에 다시 살아납니다. 점심 식사 후 **리옹**으로 이동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1095

클뤼니의 수도승이었던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새 수도원 성당의 주제대를 축성합니다. 며칠 뒤 그는 클레르몽에서 제*1*차 십자군을 호소했습니다.



클뤼니 제3 수도원 성당의 유구, 성수 탑

수도원 건물과 성수 탑, 클뤼니



해 질 녘의 푸르비에르 노트르담 대성당, 리옹

10일 차 · 리옹 — 아비뇽

리옹,
거룩한 모자이크와 비단의 전통

오전	오후	저녁
푸르비에르 노트르담 대성당 모자이크와 장식	점심 식사 카뉘의 집, 크루아루스	아비뇽으로 이동, 저녁 식사 아비뇽 숙박

금과 대리석의 대성당, 그리고 리옹 직조공들의 재능.

리옹을 굽어보는 언덕 위, 1872년부터 1884년까지 건축가 **피에르 보상**이 지은 **푸르비에르 대성당**은 성모님께 드린 리옹 시민들의 서원을 이룬 성당입니다. **모자이크**와 금박 장식에는 비잔틴과 고딕의 영향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후에는 크루아루스의 **카뉘의 집**에서 **리옹 비단**과 그 장인들의 역사를 만나고, **자카르 직기 시연**을 지켜봅니다. 저녁에 **아비뇽**으로 이동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1801

리옹 출신의 조제프마리 자카르가 천공 카드로 움직이는 직기를 발명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먼 조상입니다.



푸르비에르 대성당의 황금빛 샹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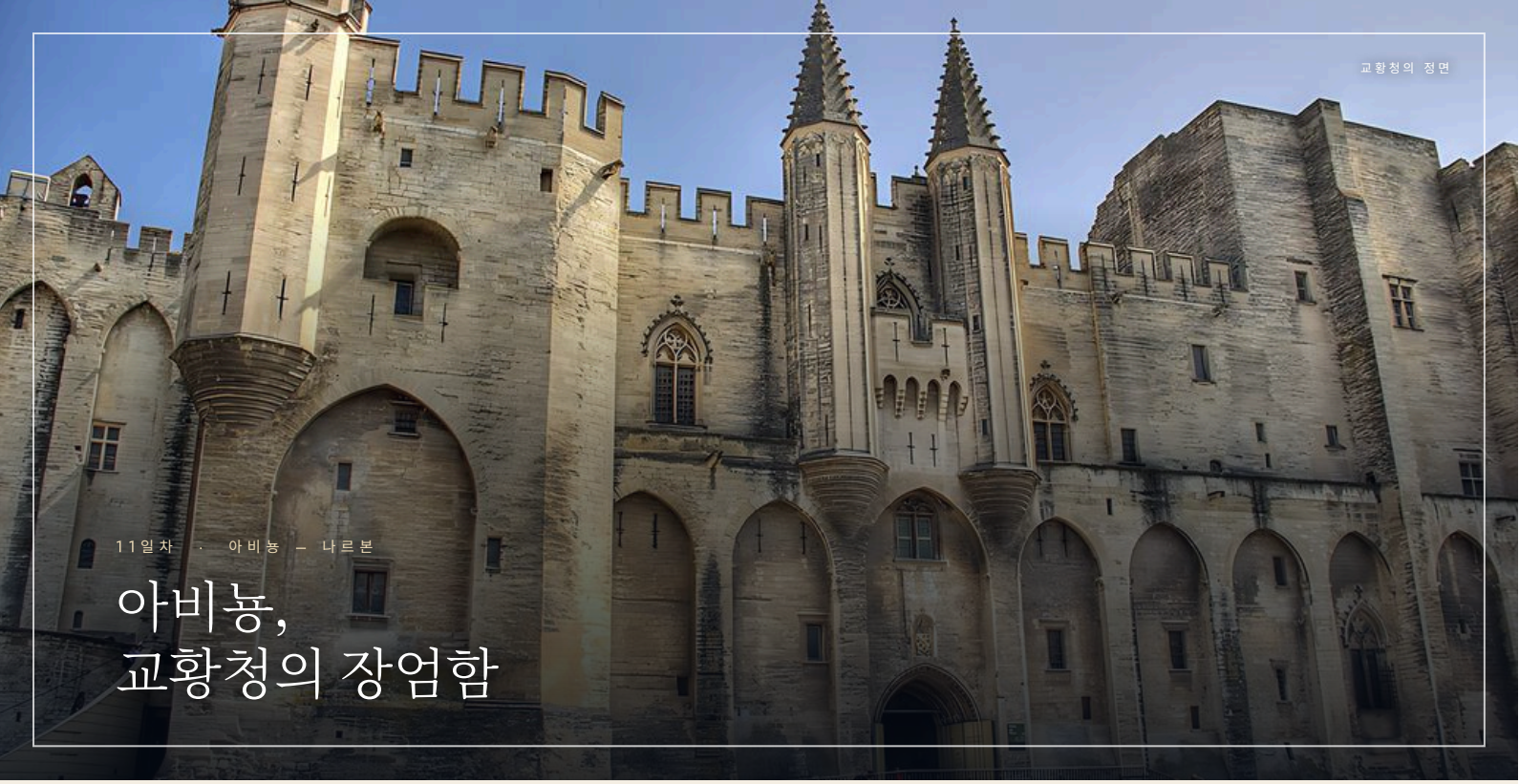
자카르 직기와 천공 카드



제 I V 장

남프랑스의 찬란함

저녁 빛에 물든 교황청, 아비뇽.



교황청의 정면

11일차 · 아비뇽 – 나르본

아비뇽, 교황청의 장엄함

오전	오후	저녁
교황청 옛 교황 거처	점심 식사 나르본으로 이동	체크인, 저녁 식사 나르본 숙박

알고 계셨나요?

15,000m²

교황청의 건축 면적입니다. 스무 해도 걸리지 않아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 궁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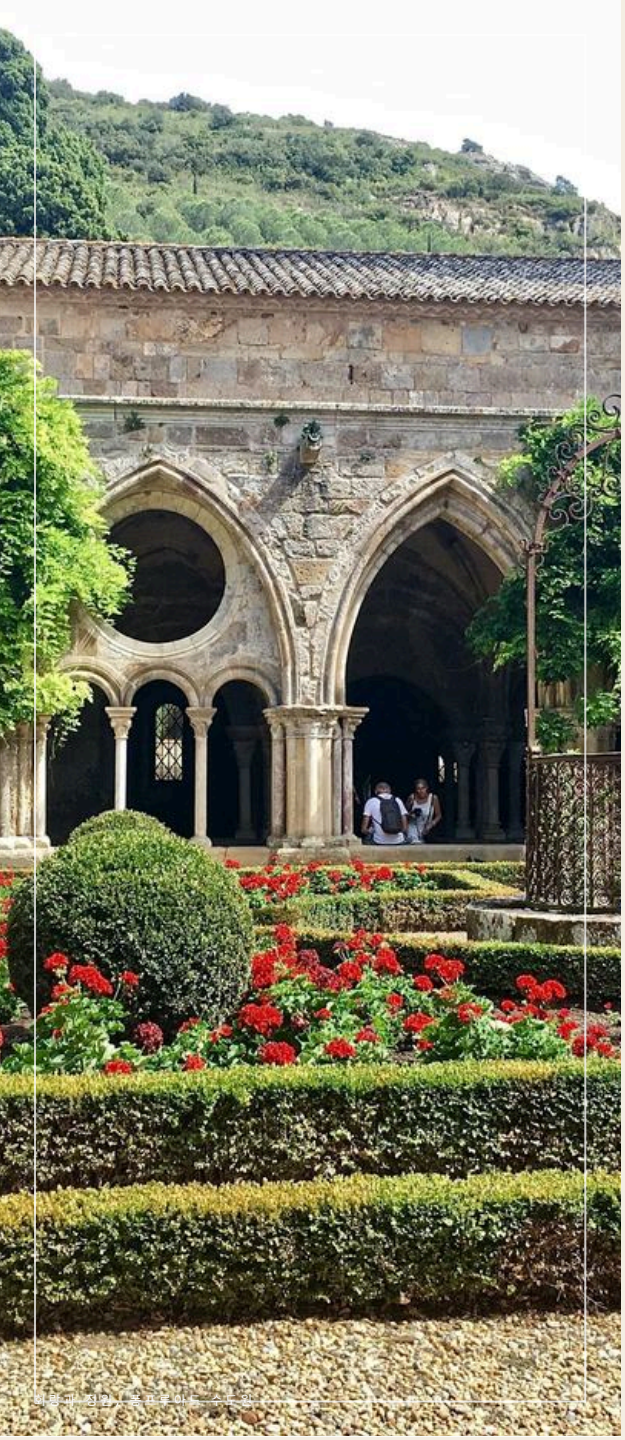
일흔 해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의 심장이 론강 가에서 뛰었습니다.

오전은 유럽에서 가장 큰 고딕 건축군 가운데 하나인 **교황청**에서 보냅니다. 1309년 **클레멘스 5세**가 프로방스에 자리를 잡은 뒤 일곱 명의 교황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베네딕토 12세**는 엄격한 요새 같은 구궁을, **클레멘스 6세**는 화려한 신궁을 지었습니다.

웅장한 연회장과 거처, 마테오 조반네티의 **프레스코화**, 탑과 돌출 총안이 교황의 권세를 증언합니다. 점심 식사 후 **나르본**으로 이동합니다.



교황청의 명예의 안뜰





폼프루아드 수도원 성당

12일차 · 나르본 – 퐁프루아드 – 알비

퐁프루아드,
수도 생활의 아름다움

오전	퐁프루아드 수도원 가이드 투어
오후	점심 식사 알비로 이동
저녁	체크인, 저녁 식사 알비 숙박

코르비에르의 골짜기, 황토빛 돌의 회랑, 그리고 흰옷 입은 수도승들의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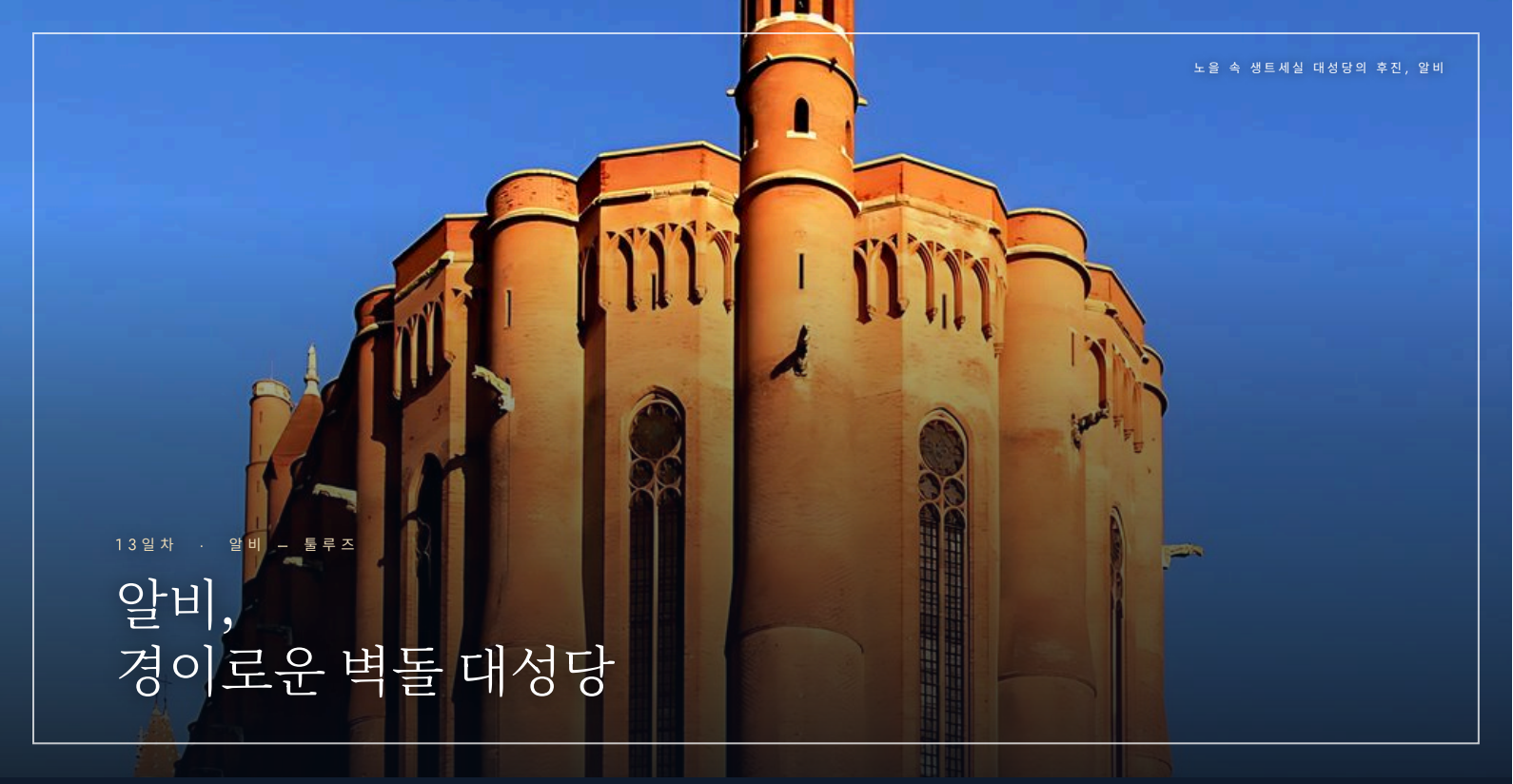
오전은 **가이드 투어**와 함께 **퐁프루아드 수도원**에서 보냅니다. 수도원 성당과 **회랑**, 수도원 건물, 계단식 정원을 둘러봅니다. 1145년 **시토회**에 합류한 이 수도원은 남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수도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시토회 규칙을 숨 쉬고 있습니다. 형태의 **절제**, 비례의 조화, 그리고 **노동**과 **기도**가 번갈아 이어지는 삶. 점심 식사 후 **알비**로 이동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1334

그해 교황 베네딕토 *12*세로 선출되어 아비뇽의 구궁을 짓기 전, 자크 푸르니에는 퐁프루아드의 수도원장이었습니다. 두 여정지는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13일차 · 알비 — 툴루즈

알비,
경이로운 벽돌 대성당

오전	오후	저녁
생트세실 대성당 가이드 투어	점심 식사 알비 도자기 공방	툴루즈로 이동, 저녁 식사 툴루즈 숙박

밖은 엄격한 요새, 안은 색채의 향연.

오전은 **가이드 투어**와 함께 **생트세실 대성당**에서 보냅니다. 알비 십자군 직후인 1282년 **베르나르 드 카스타네** 주교가 짓기 시작한 이 대성당은 교회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벽돌벽, 성채의 망루 같은 78미터의 종탑, 그리고 **남프랑스 고딕**.

내부에서는 이탈리아 화가들이 그린 **채색 궁륭**과 **최후의 심판**, 섬세하게 조각된 돌 **내진 칸막이**가 눈부십니다. 오후에는 **알비 도자기 공방**에서 흙을 다루는 작업을 만난 뒤 **툴루즈**로 이동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1512

푸른빛과 금빛의 채색 궁륭이 완성된 해입니다. 프랑스에 남아 있는 가장 넓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입니다.



생트세실 대성당의 내진 칸막이



생트세실 대성당의 채색 궁륭



13일차 · 알비

생트세실, 채색된 대성당

프랑스에서 가장 넓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가 펼쳐진 생트세실 대성당의 채색 신랑.

14일차 · 툴루즈

툴루즈,
마지막 위대한 걸작들

오전	오후	저녁
생세르냉 대성당	자코뱅 수도원	송별 만찬
가이드 투어	가이드 투어, 자유 시간	툴루즈 둘째 밤

로마네스크의 찬란함, 그리고 남프랑스 고딕의 대담함.

하루는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순례자**들을 위해 지어진, 유럽에 남아 있는 가장 큰 로마네스크 성당 **생세르냉 대성당**에서 시작합니다.

도미니코회의 요람인 **자코뱅 수도원**에서는 **두 개의 신랑**과 그 유명한 돌 **'종려나무'** 기둥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송별 만찬**을 함께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22

높이 *28*미터에 이르는 자코뱅의 '종려나무' 기둥머리에서 부채처럼 펼쳐지는 리브의 수입니다. 고딕 건축의 독보적인 걸작입니다.



자코뱅 수도원의 '종려나무' 기둥

생세르냉 대성당과 종탑, 툴루즈



황혼의 퐁뇌프, 툴루즈

15일차 · 툴루즈 — 툴루즈 블라냑

안녕, 프랑스

오전	오후	저녁
호텔 조식	전용 버스 이동	탑승 수속 지원
툴루즈에서의 마지막 순간	툴루즈 블라냑 공항으로	여행 종료

*15*일, 열네 개의 걸작, 천 년의 역사.

조식 후 **전용 버스**가 일행을 **툴루즈 블라냑** 국제공항으로 모시고, **탑승 수속**을 도와드립니다.

노트르담의 궁륭에서 생세르냉의 벽돌까지, 저마다 이 경이를 지어 올린 이들의 기억을 안고 돌아갑니다. **건축가**, **석공**, **유리화가**, 조각가, 그리고 화가들.

알고 계셨나요?

14

*15*일 동안 만나는 탁월한 건축물의 수입니다. 생드니의 초기 고딕에서 자코뱅의 남프랑스 고딕까지.

네 가지 공예,
네 가지 장인의 세계

유리, 불, 비단, 그리고 흙.
방문의 감동을 이어 가는 장인의 손길.


스테인드글라스 공방의 작업

I 4일차 · 샤르트르

국제 스테인드글라스 센터

중세의 십일조 곳간에서 만나는 **스테인드글라스**의 역사와 유리 작업. 재단, 그리자유 채색, 굽기, 조립.


녹은 유리, 불의 예술의 한가운데

2 5일차 · 루앙

불의 예술 갤러리

16세기 묘지였던 **에트르 생마클루**에서 만나는 **도자기**, 유리, 금속 공예.


자카르 직기와 천공 카드

3 10일차 · 리옹

카뉘의 집

크루아루스에서 만나는 **리옹 비단**의 역사와 **자카르 직기** 시연.


물레 위에서 빚는 흙

4 13일차 · 알비

알비 도자기 공방

흙 준비, 성형, 굽기, 유약, 장식까지 제작의 모든 과정.

세심하게 준비한 여행

모두가 본질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발견과 감탄,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교통

-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영접
- 도착 시 호텔까지 전용 차량 이동
- 전 일정 전용 대형 관광버스
- 툴루즈 블라냐크 공항까지 마지막 이동 및 탑승 수속 지원

숙박

- 엄선한 호텔에서 14박
- 4성급·5성급 프리미엄 호텔, 여정지와 객실 사정에 따라

문화유산

- 전문 가이드 투어 8회: 생드니, 루앙, 아미앵, 랭스, 스트라스부르, 퐁프루아드, 알비, 생세르냉과 자코뱅
- 일정에 포함된 대성당, 성당, 수도원, 건축물 방문
- 명시된 유료 관람지 입장, 예약 조건에 따름
- 국제 스테인드글라스 센터, 불의 예술 갤러리, 카뉘의 집, 알비 도자기 공방

특별한 체험

- 파리 환영 만찬
- 센강 미식 디너 크루즈
- 프랑스의 전통과 장인 기술 체험
- 툴루즈 송별 만찬

건축물 개방 시간, 미사, 문화 기관의 프로그램은 여행 준비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버스 이동 경로는 현지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사진: Sheila Sund / Flickr CC BY 2.0 · Hannah Reding / Unsplash · Sandip Roy / Unsplash · Ian Kirkland / Unsplash · Dennis Jarvis / Flickr CC BY-SA 2.0 · Caroline Léna Becker / Flickr CC BY 2.0 · @ S@ndrine / Flickr CC BY 2.0 · jacquemart / Flickr CC0 1.0 · belgianchocolate / Flickr CC BY 2.0 · Patrick / Flickr CC BY-SA 2.0 · Ad Meskens / Commons CC BY-SA 4.0 · Diliff / Commons CC BY-SA 3.0 · Unsplash · Ryan Klaus / Unsplash · Frank Kirgis / Unsplash · xiquinhosilva / Flickr CC BY 2.0 · cattan2011 / Flickr CC BY 2.0 · Bastien Nvs / Unsplash · Rohan Reddy / Unsplash · Bradley Weber / Flickr CC BY 2.0 · Stefan Jurca / Flickr CC BY 2.0 · lwtt93 / Flickr CC BY 2.0 · Mick Haupt / Unsplash · Sarah Nikiforoff / Unsplash · Hernán Piñera / Flickr CC BY-SA 2.0 · Ale / Unsplash · Pierre_Bn / Flickr CC BY 2.0 · Tim Adams / Wikimedia Commons CC BY 3.0 · TxllxT TxllxT / Commons CC BY-SA 4.0 · Flocci Nivis / Commons CC BY-SA 4.0 · Leonhard_Niederwimmer / Pixabay · Artur Staszewski / Flickr CC BY-SA 2.0 · decar66 / Flickr CC BY 2.0 · Michael / Unsplash · MAMJODH / Flickr CC BY 2.0 · Benh LIEU SONG / Flickr CC BY-SA 2.0 · Pom² / Commons CC BY-SA 3.0 · Frédéric Neupont / Commons CC BY-SA 4.0 · Sergei Gussev / Flickr CC BY 2.0 · Marco 44 / Flickr CC BY 2.0 · Pixabay.



건축의 심장에서 보낸 15일

아름다움과 역사, 그리고 천재성의 세기들

생트샤펠의 눈부신 스테인드글라스에서 아미앵의 거대한 궁륭까지, 랭스와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의 장엄함에서 알비의 경이로운 장식까지. 이 위대한 여행은 프랑스 그리스도교 건축의 가장 탁월한 창조물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안내했습니다.

샤르트르에서는 스테인드글라스의 예술을, 리옹에서는 비단의 비밀을, 루앙과 알비에서는 물질을 예술 작품으로 바꾸는 장인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아름다움과 역사, 인간의 천재성이 쌓아 온 세기들을 바라보는 15일. 프랑스의 성스러운 걸작 한가운데로 떠나는 여행입니다.